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8. 03	08. 10	08. 17
대 표 기 도	이상호 목사	윤미경 자매	이예준 형제
성 경 봉 독	정환영 형제	윤미경 자매	이예준 형제

교회소식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성찬예배 - 다음 주일(8월3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합시다.
4. 7월 생일 축하 - 조영재, 신기훈, 정수영 형제, Andreas Mäder 성도
5. 나눔의 시간 - 예배 후 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Andreas Mäder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구제헌금	
선교헌금	
합계(Euro)	
온라인헌금(7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HanMin Gemeinde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315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장래황 형제
성경봉독 Predigttext	시 87 : 1 - 7(구p866) (Psalm 87:1-7)	장래황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교회는 영적 고향입니다.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성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성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을 위해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 백승민 자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4.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5. 김선택, 장보경(헝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정직과 성실로 승부하라

한 대기업에 입사한 김용범군은 최종합격 통보를 받고 부서배치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제된 문제가 너무 어려워 답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시험 감독관이 나가자 커닝 페이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재학시절 ‘한동 명예제도’를 통해 무감독 양심 시험에 익숙했던 용범군은 백지 답안을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며칠 후 다른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부서로 배치되었습니다. 얼마 후 상관이 그를 불러 “자네는 왜 백지 답안을 제출했나?” 물었습니다. 그러자 용범군은 ‘답을 몰라서였습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상관은 “그렇지 그 문제는 자네들 수준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야.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낸 문제지” 상관은 알 듯 모를 듯 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정직과 성실을 교육의 핵심 가치로 가르치는 이 시대 신트로피(Syntropy)의 주역인 한동인들, 인간의 타락 이후 개인과 가정, 심지어 교회에서도 무질서의 법칙인 Entropy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Syntropy는 Entropy에 대한 반작용이자 무질서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명계에서는 엔트로피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도입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모든 피조물을 변화시켜 만물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신에 남을 위해 내 것을 내어 주는 “은혜의 법칙”을 따를 때 세상은 변화되고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트로피 드라마 / 故 김영길 총장(전 한동대학교)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교회가 영적교회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2. 교회를 통해 받은 영적 자산에 대해 나눠보세요.